

‘현장에 답 있다’...정일선 광주은행장 취임 후 광폭 행보

첫 공식일정 지역 우량 중소기업 방문
외국인 지원 관계기관과 합동 차담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도 연이어 진행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취임 직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지난 2일 정일선 신임 광주은행장이 취임식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우량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경영의 서막을 알렸다고 5일 밝혔다.

정일선 은행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금융 현장이 아닌 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정 은행장은 하남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호원을 방문해 프레스라인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주요 설비 운영 현황과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호원은 기아 쏘울·셀토스 차량에 적용되는 차체 부품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EV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광주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진 면담에서는 제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취임 첫날부터 각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일선 행장의 지역 우량 중소기업인 ㈜호원 산업 현장 방문,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외국인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 후 기념촬영을 한 모습. <광주은행 제공>

조 현장의 운영 상황과 글로벌 시장 환경 속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정 은행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난다. 광주은행 역시 지역의 생활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은행으로 현장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산업 현장 방문에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외국인 지원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 행보를 이어갔다.

정 은행장은 광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광주은행

행 외국인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차담회를 주재했다.

차담회에는 정 은행장을 비롯해 외국인금융센터장, 광주시청 다문화지원팀·인재양성팀 관계자,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산구 외국인 명예통장 등 내·외국인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주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금융과 행정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 은행장은 “외국인 주민 역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광주은행은 외국인 주

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서비스와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2025년 2월 개소한 광주·전남 최초의 외국인 전담 점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근로 형태를 고려해 일요일에도 영업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동구 충장로5가에 위치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은행장을 비롯해 여신 및 포용금융 관련 부서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광주 시 상인연합회 회장, 총장상인회장, 총장5가 번영회장, 총장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상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체감하는 경영 부담과 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대출 이자 부담 완화와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은행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광주은행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상품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현진기업,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 전국 최초 개발
작업장 내 안전성 획기적 개선 공로

지역 강소기업인 ㈜현진기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진기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공기정정기와 작업장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로 등이 인정돼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지역산업진흥 부문)으로 최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현진기업이 개발한 작업장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 시스템은 흡입 호스 센서가 인체에 유해한 농도를 감지하면 적색 경광과 함께 유해가스를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여기에 외기 유입으로 청정공기가 작업장내로 유입되면 청색 안전등으로 작업을 재개해 상하수도 공사 현장 등 작업장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일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사업



중 안전 국가 건설 사업과 연계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자체 개발한 산소 저감형 공기정화 장치는 고성능 필터와 광촉매 살균부를 결합한 구조로 교실에서 졸림, 두통, 주의 분산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축적을 억제하고, 부유세균, 악취성 가스를 동시 대응해 체감 성능까지 해결하는 기술



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진기업은 정수장 여과재 재생 기술을 공기질 분야로 확장해 이산화탄소 저감 및 유해가스 제거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진은 이를 토대로 학교·공공기관·작업 밀폐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에 적용해 운영비 절감과 국산화 기반 A/S 안정성을 강화하고, 해외 공공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진기업은 수처리 관련 8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처리 관련 2025년 기준 전국 광공서 납품실적 1위 인 중견 기업이다.

임아름 현진기업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이를 표준화·조달·운영의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기술력 증대는 물론 공공적 가치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 대성황

10개 경제단체·기관 화합의 장 마련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이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 떡국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광주·전남 지역 10개 경제단체·기관이 모여 새해 인사와 협찬 출발을 다짐하

는 행사로 매년 지역의 20여 개의 협회·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광주경총과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이 예년 질감과 경제계 화합의 의미로 공동 개최했다.

2026년 경제계 합동 신년인사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초 행사로 광주·전남 각 단체 회원사 및 자치단체장, 산하기관장, 정치권 등 인사 1천80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만 기자

한은 광주전남본부, 300억 규모 설 특별자금 지원

오는 26일부터 업체당 5억 이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자금 성수기인 설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00억원) 이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액 기준 10억원) 안팎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1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간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할 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은행)이 취급한 대출이다.

지원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5년12월 현재 연 1.00%)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어때의 마음을 만나다

문화관광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 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군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시장면적 : 68,712m2(20,685평)

·주요취급품목
-수산물, 견과류, 농산물, 식품, 음식점,
축산, 건강원, 의류, 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세요~!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혜택2
은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